

김영삼민자당총재는 11월 19일 관통민자당사회 대표를 초청, 간담회를 개최했다.
의실에서 해양관련 직능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

海洋水產部신설 21세紀對應키로

93年漁港 예산

5百68億6千3百萬원 確定 一般港은줄고據點港 등增額

魚樂消息

발행겸
편집인
인쇄인 孫 井 植
金 在 克

社團
法人 韓國漁港協會
서울특별시 강남구역 삼동 705-9

TEL. 568-6651~3
FAX. 568-6653

등록번호: 라3459

會訓
● 創意 ● 奉仕 ● 誠實

漁港은
우리 漁民의
永遠한
어머니 苦

'93 어 항 예 산		(단위 : 백만원)		
	93예산	92예산	증(△)감	비율(%)
합 계	56,863	60,331	△3,468	△5.7
○ 1·3종 어 항	50,752	54,430	△3,678	△6.8
- 시 설 비	50,087	53,932	△3,845	△7.1
- 거점 어 항	8,070	6,300	1,770	28.1
- 일 반 어 항	42,017	47,632	△5,615	△11.8
(국고체상환)		(6,000)		
- 부 대 비 및	665	498	167	33.5
기 타 사 업 비				
○ 2 종 어 항	6,111	5,901	210	3.6

漁港法 개정明年에 大統領裁可、國會審議만 남아

韓·日·어항發展協議 技術交流협약무제등

漁港協 孫회장 日漁港大會 참석

겨 주었다.
물론 이제 출범하지 갖 5
년 밖에 안되는 우리의 항국
어항협회와 일본어항협회를
맞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무
리인 것을 알고 있으나 일본
이 44년의 장구한 세월을 어
항에 쓰았던 유통망이 무언인
지 말들은 우리도 알 필요가
있다는 뜻이다.
한마디로 그정은 어항에 대
한 애정과 관심이었다. 그것
도 꼭두 어항 관계자만으로
등 수산·해운관련단체장·하여
치열한 국제경쟁에 특히 해양행정을 전담하고
50여년동안
해안사업에 위해 예상
진인 것 더 뛰어난 그들이 한 마디 더 떠나고 있다.
기지로서만 가주할 것이 아니
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으로
서 충분한 기능을 하도록 정
비를 추진해야 한다. 이와 병
행하여 도시에 비해 낙후되어
있는 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
하여 어촌을 여유와 윤택이
있고 풍랑이 있는 만남의 장
으로 창조하여야 한다. 따라
서 어항·어촌을 일체적으로
보는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할
필요가 있다.

口「漁港重視」에

第44回日本全國漁港大會에다녀와서 ··· 孫井植회장

焦點——
豫算 증액에 總力
연기 푸 長期 計劃

豫算之二〇〇 級力

그리던 그린 모양이 일론에서 는 이미 혼선복으로 실현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.
이 뿐만이 아니다. 일론의 이미 전국어학의 기본시설이 대체로 완료된 상태이다. 그 렇지만 일론어학협회는 이 정 도로는 미흡하다는 주장이다. 계속적인 정비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.

하고 주장하고 있다.
여기서 한가지 간과 할 수
없는 사항은 일본 어학계가
왜 이같은 의견을 자꾸만 개
진하고 있는지 그 배경을 아
필요가 있다는 점이다.

초내년도 정부안에서 20억원이 당지난 11월20일 제149호를 해보다 오히려 5·7나

對比 5.7%
國會서 20億원 늘려
김소

⑦) 두 4번 20언 1촌
만원이며, 저점이었으나
여 7천만원으로 28.1.
증액됐다. 그리고 2종
항은 3.6% 증가.

1990년 1월 1일
민족민주화 운동
총동원본부 출판

나. 이 거점여행이 어민도 도가 높고 어업기반 시설물을 강화 기관을 조기 도록 지원을 강화 기관

수신총리는 또 ○ 훈교 히
확산방지 차원에서 기존
왕궁여학의 보수보강지침
강화해 나가기로 했

예산증액 확보의
제2호는 학술
문화비전기계
의 건으로 잡
10년, 20년이 아
씬 뒷풀이 벌써
— 미리미리 대비
이다.
세 4호는 제 5차
— 년계획 촉진을
— 증진할 필요
— 할 수 있는 해양수산부·신설을 적극적이고
— 축진하겠다고 다짐했다.

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
보고 있기 때문이다.
참으로 놀랄고, 무렵고, 두
려운 일본 어학업체의 현실이
다. 이런 일본 어학업체를 보
는 우리 학부 어학업체의 입장
은 차별하기만 한다.
실제로는 어학부문 예산마
저 품질 살피 나가는 판국에
더 이상 무정을 어찌 한란 말
인가.
그러나 체념은 아직 이르
다. 우리에게도 기대할 것은
— 어쨌든 금번 일본 전국어학
대회의 모습이 우리 학부 어학
체육가 도약할 수 있는 하나
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
음 간절하다.

韓·日어항發展協議
技術交流협력문제등
漁港協 孫회장, 日漁港大會참석

